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7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시고 자연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일 퍼붓는 장맛비로 가족과 집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폭우로 무너져 내린 산허리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들을 돌아봐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의 여름행사 위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3,4 ..... 인도자

♠ 교 독 문 ..... 59. 시편136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임유미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96(통94). 예수님은 누구신가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막2:1-5 ..... 전수정 학생  
 II. 사5:18-21 ..... 김 극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 김재홍 목사  
 II. 서두르지 말라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찬 송 ..... 620. 여기에 모인 우리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독주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호흡에 맞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욕망에 들떠 선과 악을 구별 못하며 앞만 보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숨을 가지런히 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바르고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랑!	기도 : 이명희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윤석철 장로	서상현 학생 박성실 권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임주빈 박혜경 최현옥 김정애
	헌금위원	김인걸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지난봄 어느 날, 나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한 선배를 만났다. 그는 머리카락도 더 희끗희끗해지고 1년 전에 비해 무척 수척해져 있었다. “어디 편찮았어요?” “두 달 전쯤 수술했어.”

선배는 머릿속에 ‘물혹’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는 뇌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수술 경위를 소상히 이야기한 선배는, 자기가 뇌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 잘못 살아온 삶의 방식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였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사셨어요?” 의사의 말에 선배가 되물었다. “네? 머리를 많이 쓰다니요?” “목사님처럼 뇌 속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물혹은 가슴을 잘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의학계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가슴을 많이 사용하고 사십시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선배는 무척 부끄러웠다고 한다. 선배는 본래 머리가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선배는 지나치리만큼 논리적이고 타산적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배를 만났지만 봄바람처럼 훈훈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아무튼 선배는 잘못 살아온 삶을 뉘우치며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 “앞으론 가슴으로 살고 싶어. 시도 읽고, 젊은 시절에 취미 삼아 했던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 “선배, 잘 생각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가슴 뜨거운 연애도 좀 하시죠.” 성직자인 선배에게 연애라도 하란 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지만, 사람의 가슴에 무언가 샘솟지 않는 삶이란 죽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로스 워터는 인간의 가슴을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한다. 칼로스 워터뿐만 아니라 모든 성스러운 전통은 ‘가슴’을 중심으로 한 영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심장에는 전기적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뇌의 전기장에 비해 주파수 대역이 40배 가량 넓다. 심장의 전기적 힘은 희망, 사랑, 자애라는 심오한 감정을 일깨운다. 심장은 또한 높은 지혜의 근원이 하는 말을 듣는 ‘귀’이기도 하다.”(칼로스 워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가 수행자들은 인간의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일곱 개의 차크라 중 ‘아나하타 차크라(Anahata Chakra)’를 각성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 심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차크라는 ‘늡지 앳음’, ‘건강함’을 뜻한다. 이 차크라가 각성된 사람은 사랑, 용서, 이해, 성실,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스와미 라마) 이런 것들이 야말로 인간 앳의 중심적인 가치인데, 이 고귀한 가치는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오는 것이다.

프레도 쉐퍼시 감독의 영화 <아이큐>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 사랑은 타산과 효율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느낌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영화의 전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조카딸 캐서린은 장래가 촉망되는 뛰어난 과학자인 약혼남 제임스를 버리고, 자동차 정비공인 평범한 남자 에드 월터스와 사랑에 빠진다. 에드 월터스가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가슴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비롯된다. 작품의 대미에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한 마디로 잘 요약해 놓았다. “머리가 가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서에도 보면, 가슴의 사람 마리아가 자기 영혼의 스승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 역시 ‘가슴의 앳’을 지지하는 예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마리아가 지극한 사랑의 몸짓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자, 가롯 유다는 왜 그 귀한 것을 허비느냐고 힐난한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옳지 앳느냐는 것이었다. 가롯 유다의 냉정한 ‘머리’가 마리아의 따스한 ‘가슴’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예수는 마리아의 행위를 두둔하고 도리어 가롯 유다를 꾸짖는다.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이 여인의 행위는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너는 그 알량한 도덕의 잣대로, 논리와 계산의 잣대로 이 여인의 행위를 심판하지 말라. 가난한 자는 네가 도와도 되지 앳겠느냐?”

가르고 찢고 나누는 ‘가위’처럼 차가운 머리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세상에 상처와 분열을 가져다줄 뿐이지만, ‘바늘과 실’과 같은 자애로운 가슴을 지닌 사람은 나누어지고 상처받고 분열된 세상을 꿰매고 치유하고 봉합한다.

## ■ 마/음/으/로/위/는/글

# 장 마

내 머리칼에 젖은 비  
어깨에서 허리께로 줄달음치는 비  
맥없이 늘어진 손바닥에도  
억수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여  
나를 사랑해 다오

저녁이라 하긴 어둠 이속한  
심야라 하긴 무슨 빛 감도는  
이 한밤의 골목어귀를  
온몸에 비를 맞으며 내가 가지 않느냐,  
비여  
나를 용서해 다오

- 천상병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경연 김일량 이은옥 문복순 최현선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이봉옥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김성한 조영순 양재성  
 임미심

**월정헌금:**

고속이 김종철 고영애 송의섭 송임희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정두리  
 문홍일

**감사헌금:**

전성오 윤주원 최윤선 무명

**녹색공 헌금:**

윤석철 한상익 최다미 이건식 신영신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영화동호회와 환경동호회는 함께 ‘홈(Hom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2. 여름행사 : 이번 주 25일(토)부터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옥수수판매 : 다음 주일(26일)에 강원도 동면교회(박순웅 목사)에서 재배한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10개에 6,000원, 20개에 11,000원입니다.
4. 신앙실천 : “구멍 난 냄비 고쳐요~”, “우산 고쳐요~”란 소리가 그립습니다. 생활용품들을 아껴 쓰고, 고쳐 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윤중권 박권동 (다음 주 : 이준하 오재환 )

### <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 >

- 유치부 성경학교 : 7월 25일 ~ 26일, 교회
- 아동부 여름 캠프 : 7월 26일 ~ 29일, 홍천 은현수련원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7월 31일 ~ 8월 2일, 인제 원대리교회
- 청년부 여름 농활 : 8월 6일~9일, 천안 단비교회

### 새교우 소개

김정민 (2여선교회)

전성오 (5남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